

제21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3. 12. 21.(목) 10:00

5 분 자 유 발 언

(문화예술, 북구를 디자인하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박정환 의원)

- 문화예술, 북구를 디자인하다 -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 박정환 의원입니다.

올 한 해는 울산광역시가 법정 문화도시로서
첫발을 떼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울산이 문화로 융성하는 도시가 되기 위한
한 걸음에 우리 구도 뒤처질 수 없습니다.

우리 구는 대외적으로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발전의 중심지'라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를 넘어 '문화예술의 도시'로
북구를 '디자인' 함으로써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높이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문화예술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표현하는 방법인 동시에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고 사회를 비추며,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환경 문제, 사회 문제 등 주민 인식을 고취하고 문제를 극복하는 방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산업·관광 측면에서도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예술이 중요한 역할과 의미를 가지게 된 21세기, 우리 구도 문화예술의 도시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광복회 총사령관 박상진 의사의 숨결이 살아있고 쇠부리기술로 대표되는 철기문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천과 매곡천, 강동, 백년 역사를 품은 호계역 등 문화예술 콘텐츠로 개발할 수 있는 소재도 많습니다.

또한 구 차원에서 예술에 대한 지원도 계속해 왔습니다. 염포동의 소금나루2014, 농소1동에 위치한 감성깡도2020과 같은 예술창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약 100명이 넘는 예술가가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문화예술에 대한 주민 인식이 부족하고 예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크지 않아 울산 관내 타 구·군에 비해 문화예술 행사의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를 문화예술의 도시로 재탄생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들과 북구청, 주민들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구 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예술 활동을 확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12월에는 10명의 북구 작가들이 우리 구 명소인 ‘일곱만디와 12경’을 스탬프 이미지로 제작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처럼 지역의 명소, 특징은 물론 일상적 풍경과 예술의 연계가 우리 구의 지역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예술 정책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들을 많이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술창작소 운영 개선과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술창작소는 다양한 예술가들이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문화예술을 만들어 가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감성깡도의 작가와 지역민 교류프로그램이나
소금나루2014 입주 작가들이 참여해 직장인 대상
예술수업을 진행한 것이 좋은 사례입니다.

그러나 예술창작소의 레지던시와 교육프로그램이
공간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옵니다.
예술창작소가 주민 누구나 함께 문화예술 체험을 할 수 있고
예술가들은 전문적인 연구와 활동이 가능한
특색 있는 예술 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개선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을 지향해야 합니다.
먼저 장애인이 문화권을 향유함에 있어

비장애인에 비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물리적 접근성, 콘텐츠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울산연구원에 따르면 울산은 장애예술인 소득수준이 전국 최하위이고, 등록되지 않은 장애예술인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장애예술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창작물 우선구매 등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산업도시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구를 ‘문화예술도시’로 새로이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이 그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발전시켜 ‘살고싶은 북구’, 누구나 찾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